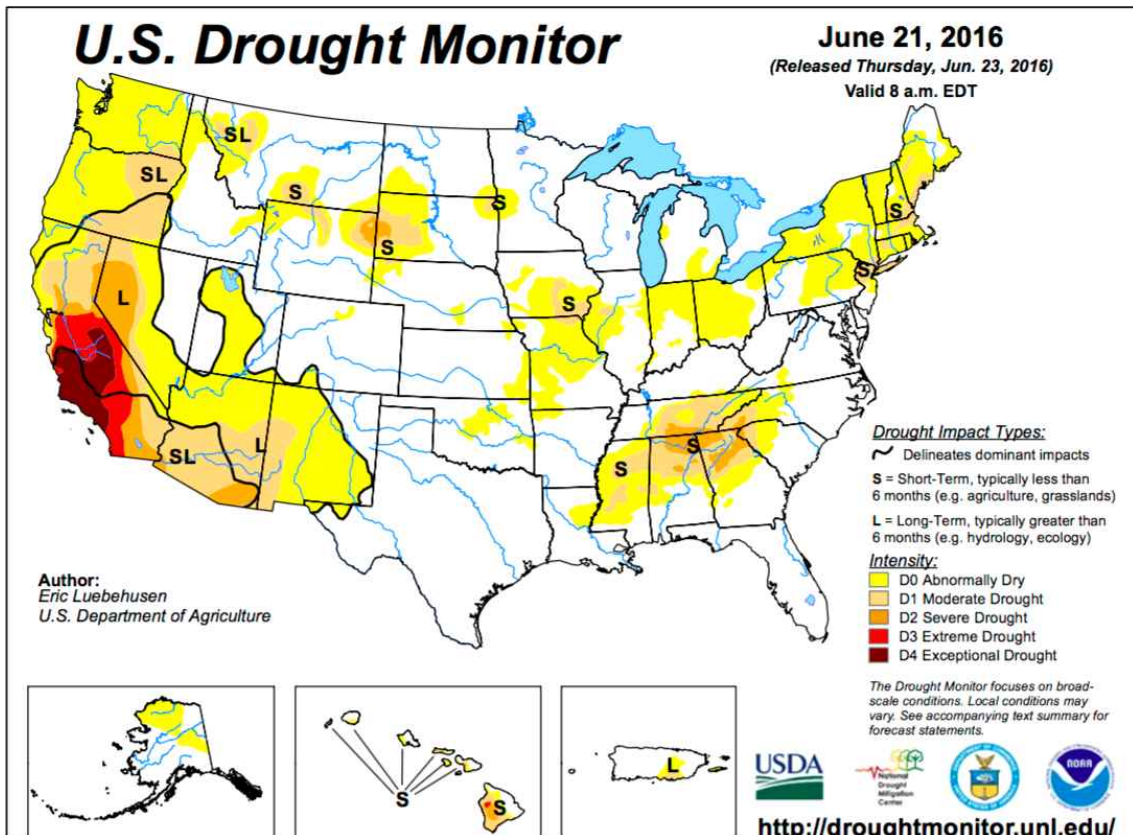


6월 2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26)

□ 미국 기후 현황(6/19~6/25)

태평양 연안의 북서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높은 기온 탓에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 작업이 많아졌다. 중서부와 애팔래치아 산맥 일대에서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버지니아 서부 일대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평원, 북동부, 북서부 및 로키산맥 중부와 남부에서는 소나기가 흩뿌리는 정도에 그쳤다. 캘리포니아와 내륙산간지역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산불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남동부 일대에서도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플로리다 남부와 걸프만 연안 서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6/20~6/26)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남서부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9°F 이상 높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서양 연안 지역과 북서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지역들이 많았다.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대서양 중부지역에서 중서부에 이르는 지역에는 비가 내렸다. 오하이오에서는 강우량이 평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지역도 있었고, 버지니아 서부에서는 침수피해도 발생했다.

□ 농업 현황 요약(10/19~10/25)

■ 옥수수

Silking 단계가 끝난 지역은 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3%p 앞선 상황이고, 5개년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앞서는 수준이다. 75%가 생육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p 높은 수치이다. 아이오와와 일리노이 등 대표적인 옥수수 재배지에서는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9%, 71%였다.

■ 겨울밀

6월 26일 기준 수확률은 45%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2%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4%p 앞선 수치이다. 중부와 남부의 맑은 날씨 덕분에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일리노이, 캔사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25% 이상 수확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생육상황이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이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21%p 높은 수치이다.

■ 면화

6월 26일 기준 29%가 squaring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p 늦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4%p 뒤쳐진 수준이다. 알칸사스와 미주리에서는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각각 17%p, 24%p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파종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6%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56%의 응답자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고, 이는 지난주에 비해 2%p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 쌀

6월 26일 기준 응답자의 16%가 발아단계를 마쳤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6%p 앞선 수치이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각각 22%p, 20%p 이상 발아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9%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6/19~6/25)

■ 유럽: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겨울작물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프랑스와 폴란드 북서부 등에서는 겨울밀 등의 수확작업이 재개되었다. 지난 몇 주간 이어진 비로 인해 생육이 다소 늦어지기도 했고, 생산 전망도 밝지는 않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남동부, 프랑스 중부와 남부, 독일 등에서는 주 후반 10~50mm 내외의 비가 내리면서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스페인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평년에 비해 기온도 높았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맑은 날씨를 유지한 가운데 대두와 옥수수의 성장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낮 기온이 35~38°C 까지 오른 가운데 지난 60일간 내린 평년 이상의 비로 생육환경이 좋은 상황이다. 북동부에서는 5~35mm 내외의 비가 내린 가운데 봄작물의 생산전망은 밝은 편이다.

■ 구소련(서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러시아 남부 등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수확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낮 최고기온은 35°C까지 올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북부와 서부의 몰도바, 벨라루스, 러시아 중부 등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 동아시아: 중국 중부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양쯔강 인근에 내린 이번 비로 벼 재배지에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었고, 지난 6월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가뭄을 해소해 주었다. 양쯔강 인근의 강우량은 25~100mm 내외를 기록했는데, 밀 재배지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북동부에서도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옥수수, 대두 등의 재배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6월 강우량은 평년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일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혼슈 남부에서는 100~250mm의 비가 내렸다.

■ 호주: 남부와 동부 일대에서는 땅을 흠뻑 적실만큼 많은 비가 내렸다. 강우량은 10~50mm 내외였고, 밀재배지역을 제외한 서부 일대에서는 가벼운 소나기가 내렸다. 강우량은 3~15mm 내외였다. 서부와 남부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였고, 동부에서는 평년에 비해서 1~2°C 정도 기온이 높았다.

■ 아르헨티나: 중부에서는 옥수수와 대두 수확에 유리한 날씨가 이어졌고, 북부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면화의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La Pampa, Buenos Aires 북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북동부의 Chaco, Formosa 및 Santa Fe 등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에 내린 비로 면화 수확작업은 지연되었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옥수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간 낮았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6월 23일 기준 옥수수와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95%, 49%이며 옥수수의 경우 지난 해 같은 기간 수확률인 63%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치이다.

- 브라질: 남부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내린 가운데 따뜻한 날씨를 유지했다. Rio Grande do Sul, Santa Catarina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C 정도 낮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5°C 미만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영하로 내려간 지역은 없었다. Parana에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Sao Paulo, Minas Gerais 등 커피, 사탕수수 재배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동부 해안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